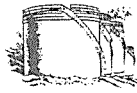




쌍용정유는 73년 세계 제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건설된 회사이다.

제1차 석유파동은 국내의 제 분야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는 국가의 큰 관심사로 떠오를 수 밖에 없었다.



이 제시한 온산지역을 공장부지로 결정하고 공장 설계 및 감리를 위해 77년 2월 포스터 휠러(Foster Wheeler)사를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77년 12월 보리스호에 실려온 최초의 건설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서부터 각종 구조물과 송유관이 건설되자 공장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 쌍용정유의 어제 · 오늘 · 내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대적인 과제였다. 특히 벙커C유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 철강산업의 위기는 심한 타격이 예상되던 시기였다. 실제로 국내 최대의 시멘트 제조업체인 쌍용양회는 벙커C유 공급이 끊어져 조업중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그룹은 2년여의 어려운 교섭 끝에 이란국영석유공사(NIOC)와 50 : 50의 합작정유공장 건설계약에 합의, 76년 1월 6일 쌍용정유의 전신인 한·이석유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민간기업으로서 세계 최초로 NIOC와 직거래 방식의 장기 원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숙원 사업이었던 석유의 메이저 의존탈피라는



孫銀姬  
(쌍용정유 홍보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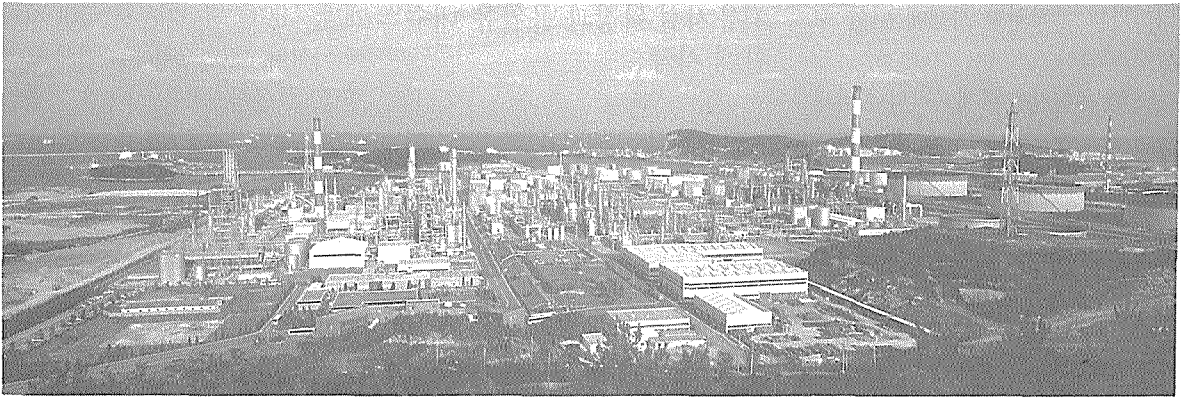
과거를 이룩했다. 이에 앞서 75년 12월에는 상공부로부터 하루 6만배럴의 원유정제 및 3,320배럴의 운환기유제조를 위한 석유 정제업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쌍용정유의 온산공장 건설사업은 산유국과 원유 직거래 및 공급선의 다변화라는 정부시책으로 이어져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합작회사를 설립한 쌍용은 정부측

드러나기 시작했다. 80년 5월 정유공장 가동과 함께 그해 11월 운환기유 공장도 가동함으로써 81년 1월 6일 마침내 온산운환정유공장은 본격적인 상업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온산공장이 완성되기 전에 이란에서 일어난 회교혁명으로 한·이석유는 난관에 직면했다. 이란 회교정부가 해외 투자자본에 대한 철수정책을 발표하자 이란국영석유공사 측은 즉각적으로 쌍용측과 체결한 기존의 합작사업계약과 장기 원유공급 계약의 파기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 정부측의 양운세동자부장관을 비롯, 쌍용그룹의 김석원회장과 한·이석유 이승원 사장이 이란을 방문해서 쌍용과 이란국영석유공사 간에 체결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하는 정부 차원의 합의



각서를 교환했고, 이어서 80년 6월 4일 이란측 소유 주식을 전량 인수함으로써 쌍용과 이란국영석유공사와 합작사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해 6월 28일 한·이석유의 상호를 쌍용정유주식회사로 변경함으로써 총 자본금 165억원의 순수 민족자본의 정유회사로 탄생하게 되었다.

쌍용정유의 출범으로 정유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산유국과 원유 직거래 도입방식으로 국내 소요 원유의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했고, 순수민족자본으로 과거 석유 메이저의 횡포를 지양했는가 하면 국내 최초로 첨단 윤활기유의 국산화에 성공해 자급체제의 구축과 함께 수입대체 효과를 올렸다. 또 해외 임가공사업을 통해 국내 석유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국내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해외 수요창출에 이바지 했다.

## 어려운 여건 속에 판매망 확보

쌍용정유가 정상가동되기 전에 발

생한 79년 제2차 석유과동으로 원유가격 폭등이 야기되고 국내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제반 생산활동의 둔화, 탈석유정책 추진으로 연료대체, 석유류 소비절약 추진으로 80년에서 82년까지 처음으로 석유 수요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정유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석유산업은 정제능력 과잉현상이 발생해, 쌍용정유는 역경과 시련속에 험준한 판로를 개척해야 했다. 또 경제성보완을 목표로 건설된 윤활기유 시장까지 수입기유의 덤핑공세로 판매부진을 모면하지 못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대미 달러의 환율 폭등과 국제금리의 불안정으로 가동 초기에 투입된 고정비와 이에 따른 금융비 부담이 가중되어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쌍용정유는 이러한 악조건을 안정성장을 위한 체질강화의 계기로 삼아 경영개선과 치열한 지구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즉 외부적으로는 산유국과 유기적인 관

계를 돈독히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원유를 도입하고 해외시장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격적인 해외 임가공 사업에 뛰어들어 가동률과 수익성을 향상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경영합리화조치로 공장운전의 최적화를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생산과 내부관리체계의 긴축·적정화에 주력하면서 착실하게 손익개선을 구축했다.

## 정제시설 확장과 품질 향상

당초 쌍용정유는 공장 건설시 휘발유 제조시설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큰 휘발유를 직접 생산하지 못한 관계로 주유소등의 기존 시장 침투에 어려움과 위탁제조를 통한 휘발유 공급으로 막대한 임가공료를 지불해야 했다.

84년 6월 온산공장 부지내에 나프타 탈황시설 및 접촉개질 시설, LPG 분리시설 건설에 착수한 쌍용정유는 85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휘발유 공급으로

타사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윤활기유 국제시장의 공급과잉이 몰고 온 메이저의 국내 덤핑판매로 윤활기유 시장의 가동의 한계 상황속에서도 국내 윤활기유의 자급체제 구축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축적을 통한 품질개선에 주력해왔다.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쌍용정유는 85년부터 흑자를 시현하여 안정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87년 5월에는 가동 7년만에 기업공개로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최근에는 휘발유를 비롯한 제품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안정성장의 기반을 갖춘 쌍용정유는 국내 석유시장의 공급부족, 석유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 정제시설 능력의 국제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91년 1월 10만 배럴 증설사업을 마쳐 현재 1일 32만5천배럴의 정제시설을 갖추고 있고, 제3정유시설 공사에도 착수, 오는 94년 말이면 120만 배럴의 제3정유처리시설을 갖추게 된다.

## 저유시설 확장과 윤활유 내수 판매 시작

제품은 생산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도 무척 중요하다. 온산공장의 가동 초기에는 저유시설이 부족하여 타사 저유소를 임차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유류를 공급했다. 그러나 마케팅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82년에 인천저유소 건설에 착수했다. 인천시 중구 향동 79번지 일대 2만여평의 부지에 착공 7개월만에 조기 완공을 했다. 해상시설과 육상시설이 포함된 인천저유소의 완공으로 2만톤급 유조선과 5백톤급 유조선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온산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상운송되어 서울·경기 지역에 안정공급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후 부산, 마산, 목포, 광주, 전의, 임실, 여수, 군산, 시흥저유소를 건설하여 저유용량의 확대와 함께 제품의 안정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쌍용정유는 81년 수첨개질공법에 의한 윤활기유 공장 건설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윤활기유의 자급체제를 구축했으며,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공정개선으로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84년부터 고급 윤활유제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해 오면서 축적한 자체 윤활유 배합기술을 바탕으로 드래곤이라는 고유 제품을

개발, '89년 하반기부터 국내 시판에 나섰다. 93년 7월에는 자체 생산한 고급 윤활기유를 사용한 가솔린 엔진오일 '드래곤SH'를 개발했다. 그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용 윤활유를 비롯한 선박용·산업용 윤활유와 절연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사업영역 다각화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사업(BTX)에 진출, 91년 2월 연간48만톤 규모의 BTX공장을 건설하여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BTX관련제품의 계열화 및 증질유 분해시설의 부산물을 이용한 MTBE, 폴리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 사우디 아람코사와 합작

그리고 국내의 여건상 증질유분해 탈황시설 건설이 시급해지자 91년 5월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사와 증질유 크래킹센터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설 규모는 증질유 분해시설 6만 배럴, 증질유 탈황시설 2만5천배럴 규모로 95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합작으로 막대한 소요자금의 적기 확보로 증질유 분해 탈황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고, 사우디 아람코를 통한 국내 원유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작 사업으로 쌍용정유는 명실공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



력있는 정유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내의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계획아래 온산공장 당목지역에 92년 2월 기술연구소를 준공했다. 기술연구소에서는 정유부문의 시설고도화, 운할부문의 종합화, 석유화학을 통한 정밀화학 진출 및 계열화, R&D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고객만족’ 위한 3C 운동 전개

쌍용정유는 고객을 위하고 고객과 함께 번영하는 ‘고객만족경영’ 이념에 따라 고객 지향적인 판매 및 서비스 체계를 도입해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지사망과 계열 대리점을 통해 고품질을 자랑하는 쌍용정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경제개방화와 자율화 시책으로 주유소 신설규제완화 및 유가 자율화, 그리고 주유소 상표 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91년 10월부터 전국 계열 주유소를 대상으

로 3C(친절, 청결, 편리: Close Clean Conviniient) 운동을 전개하여 밝고 친절한 주유소 문화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 2천년대를 향한 중장기 계획

산유국과 원유의 적도입 실현으로 석유에너지의 안정공급에 기여했고, 어려운 국내 환경에서도 꾸준히 노력,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쌍용정유는 올해로 창립 18주년을 맞았다.

쌍용정유는 시설 고도화를 통한 공장 첨단화로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정유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여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현재 사우디아람코사와 합작, 건설 중에 있는 중질유 분해시설 건설을 통한 시설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유를 주로 생산하는 수첨분해시설 3만배럴과 중질유 탈황시설 2만5천 배럴은 95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며, 휘발유를 주로 생산하는 접촉분해시설 3만 배럴은 96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생산 전제품을 경질화하는 첨단 정유공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둘째로는 최대 가동을 통한 국내외 시장확대 및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유선택의 탄력성에 의한 최대 가동으로 정유산업을 단순 내수산업이 아닌 수출 산업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품질 및

서비스 차별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고객만족 경영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해외시장을 개척해 연 10억불 이상을 수출해왔으며 이를 성장가능성이 큰 현대평양지역으로 확대하여 해외 판매 및 수익원을 배가할 계획이다.

셋째, 정제시설 능력 확충 및 해외 합작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20만배럴 규모의 제3원유정제시설을 560억원을 투자하여 94년말까지 완공할 방침이며, 최근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현지 합작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인접국가 수급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넷째, 탄력적인 원유선택을 통한 공장 최적 가동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아람코사와 합작을 통해 소요 원유에 대해 20년간 장기공급을 보장받고 있어 공장의 최적 가동에 적합한 원유선택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 있는 고급 윤활기유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다. 윤활기유사업은 석유관련사업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최첨단 기술분야로 쌍용정유가 81년 국산화에 성공한 이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추구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설 확충을 통해 내수 및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